

SEOUL ECONOMIC BULLETIN

경제동향

■ 요약

■ 생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
■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■ 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■ 물가 소비자물가/신선식품

곽지원 연구원(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)

■ 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
■ 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재단

■ 수출입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

정의영 연구원(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)

| 요·약 | 12월 서울의 경제동향

생
산

- 서울의 1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9.8로 전년 동월 대비 6.1% 증가
- 12월 제조업 출하·재고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.0%, 3.5% 증가하여 경기확장기

소
비

-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,692억 원으로 전국(6조 9,217억 원)의 34.2%를 차지
- 12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5.8% 감소,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9.5% 증가

고
용

- 서울의 12월 취업자는 51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(0.1%)이 증가
-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60.5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감소, 실업률은 4.1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상승

물
가

- 2014년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.7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

부
동
산

-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요 상승지역은 종로구(0.22%), 성동구(0.16%), 주요 하락지역은 강북구(-0.15%), 서초구(-0.12%), 용산구(-0.12%)
-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0.2로 전월대비 상승하고, 전 자치구에서 전월보다 상승한 가운데, 주요 상승지역은 종로구(0.75%), 강북구(0.64%), 서초구(0.75%), 강남구(0.68%)

금
융

- 서울의 12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91조 8,2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26% 증가
- 서울의 12월 가계대출은 189조 6,801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8% 증가
-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는 2,520개로 전월 대비 16.9% 증가
-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는 29개로 전월 대비 81.3% 증가
- 서울의 12월 보증금액, 보증지원건수 전월 대비 각각 45.6%, 40.8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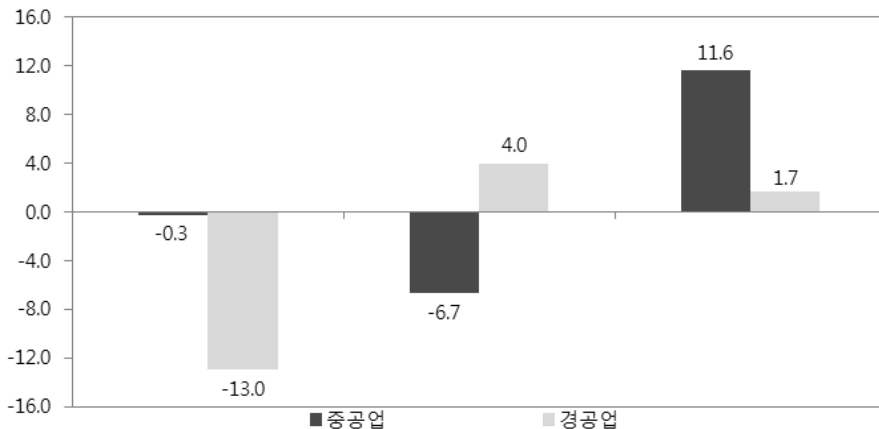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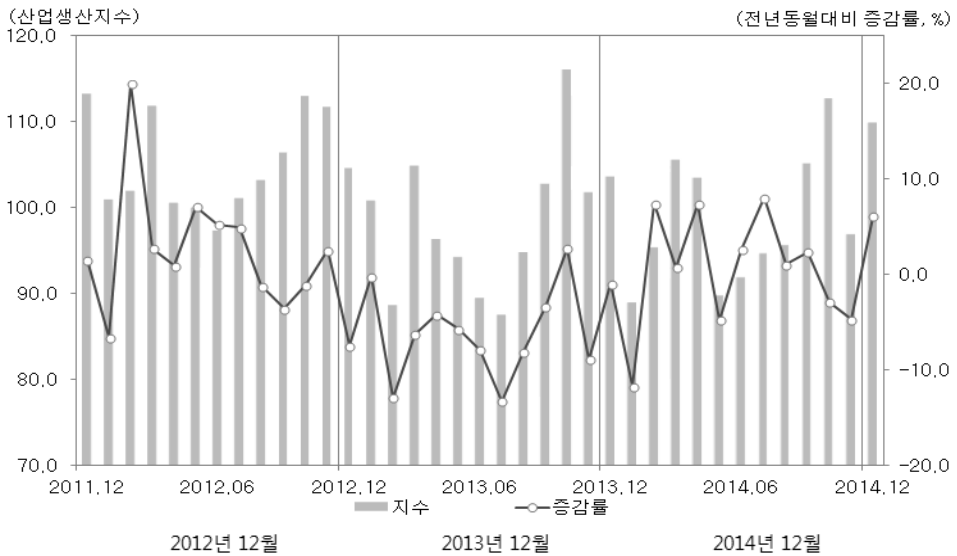
수
출
입

- 서울의 12월 수출은 51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0.8% 감소하고,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12월 수입은 121.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.9% 증가하고, 품목별로는 자동차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| 생 · 산 |

■ 서울의 2014년 12월 제조업생산지수 109.8(2010=100)로 전년 동월 대비 6.1% 증가

- 공업구조별로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1.6% 증가, 경공업은 1.7% 증가
-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의료정밀과학(102.6%), 전기장비(92.5%), 전기·가스·증기업(11.3%) 등은 증가, 기계장비(-42.8%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(-23.7%), 기타제품(-18.9%) 등은 감소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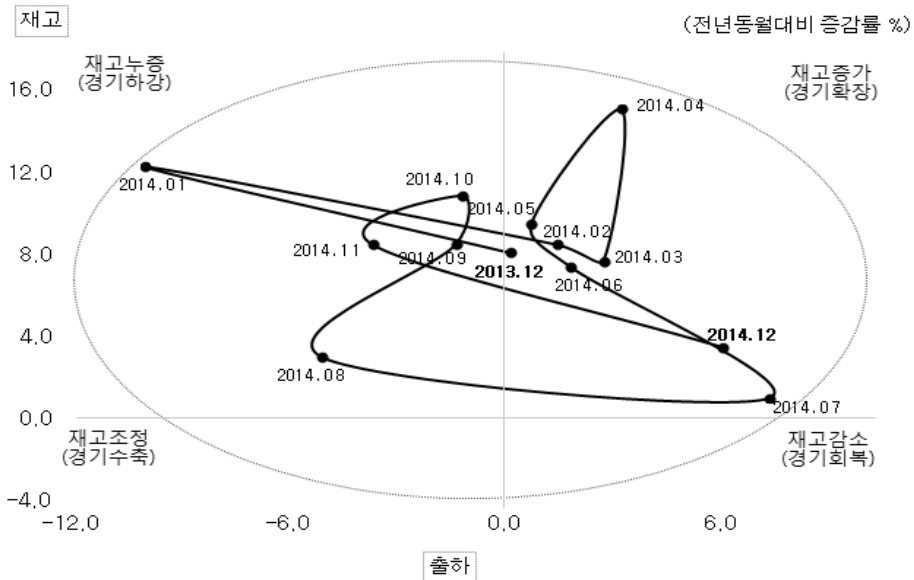
<그림>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- 서울의 12월 제조업 출하,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로 경기확장기
 - 서울의 12월 출하지수는 112.9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6.0% 증가
 - 서울의 12월 재고지수는 120.3(2010=100.0)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5% 증가
 - 출하, 재고가 상승하여 경기확장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<참고>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| 경기수축기 | 경기회복기 | 경기확장기 | 경기하강기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출하↓ | 출하↑ | 출하↑ | 출하↓ |
| 재고↓ | 재고↓ | 재고↑ | 재고↑ |
| 재고조정 | 재고감소 | 의도된 재고증가 | 재고누증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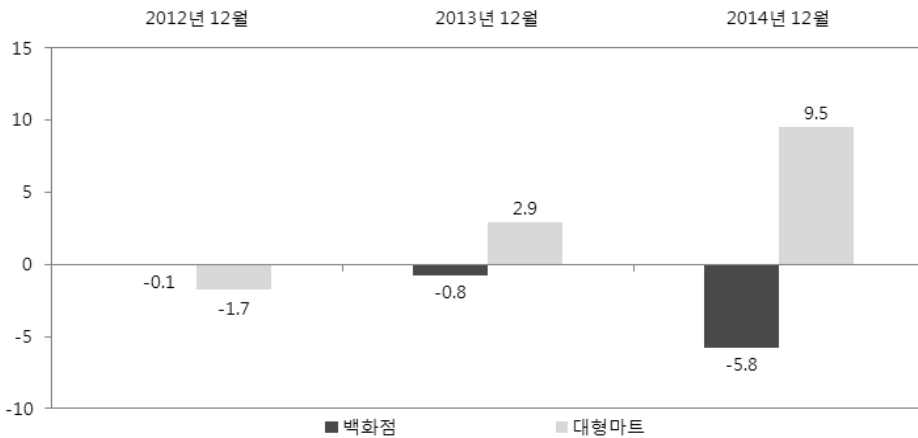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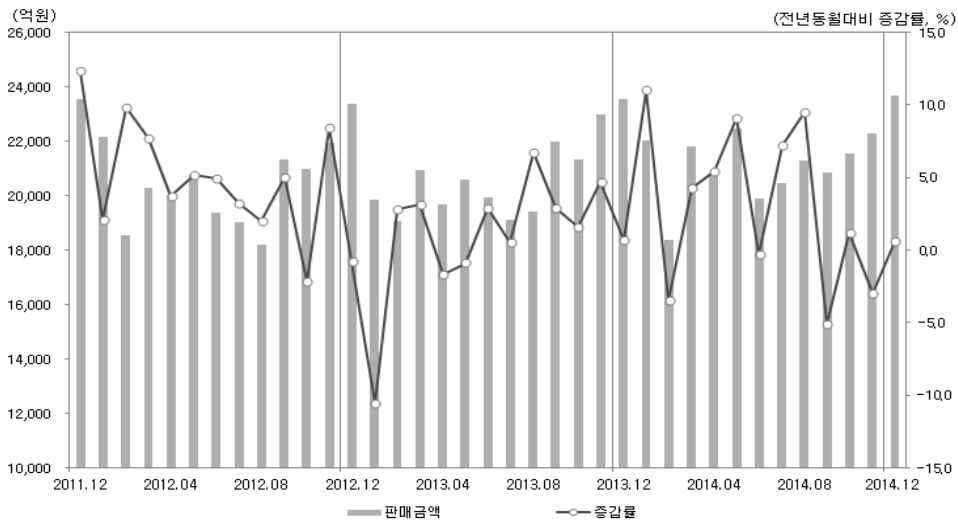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 · 비 |

■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.6% 증가

-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,692억 원으로 전국(6조9,217억 원)의 34.2%
- 백화점 판매액은 1조 2,845억 원으로 전국(2조 8,888억 원)의 44.5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846억 원으로 전국(4조 329억 원)의 26.9%를 차지
-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6.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.2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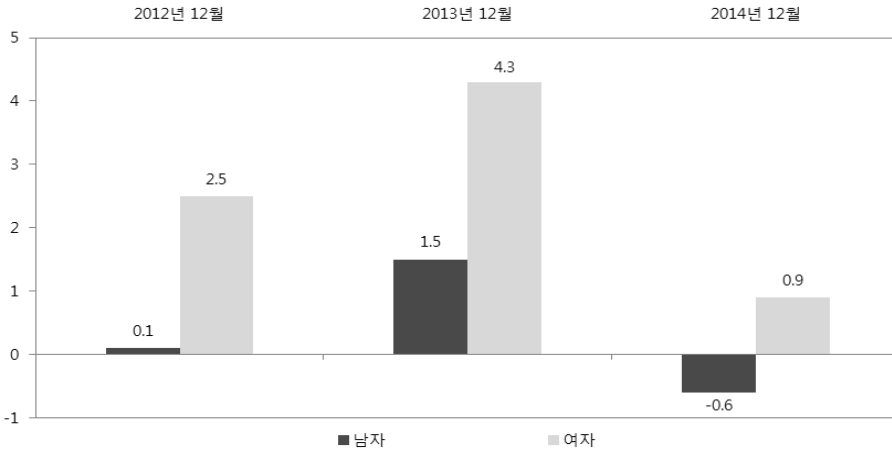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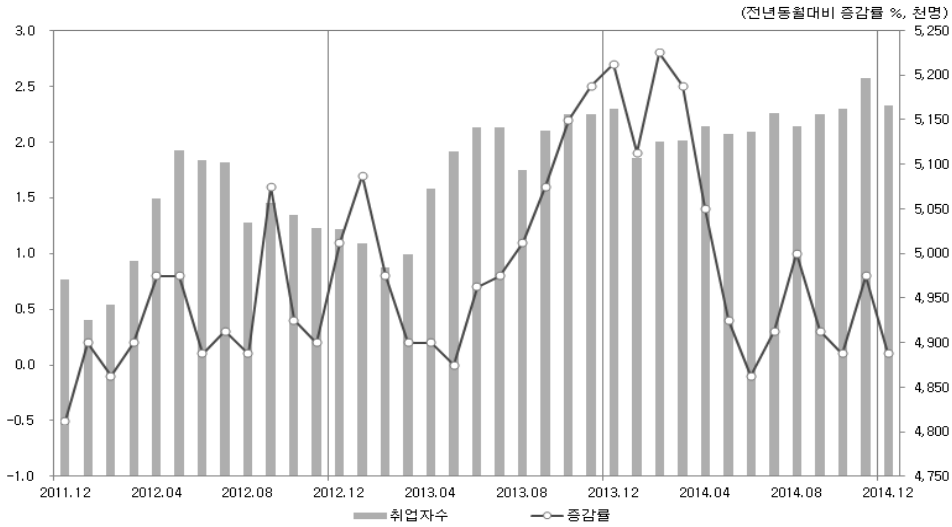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| 취·업·자 |

■ 서울의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1% 증가

- 서울의 12월 취업자는 51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(0.1%)이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 명(-0.6%p) 감소하고, 여자는 230만 8천 명으로 2만 2천 명(0.9%) 증가
- 산업별로 보면, 도소매·숙박음식업이 7만 4천 명(5.3%), 건설업이 2만 6천 명(8.5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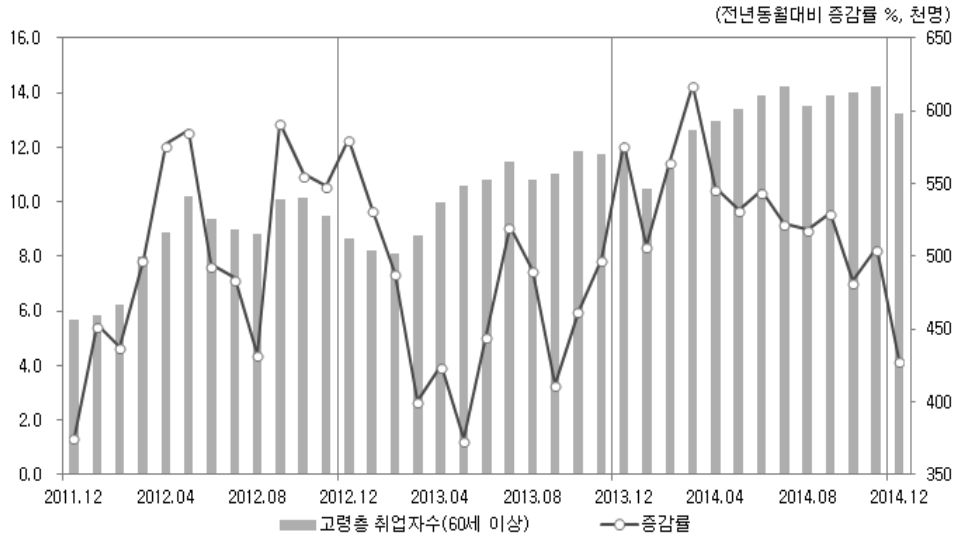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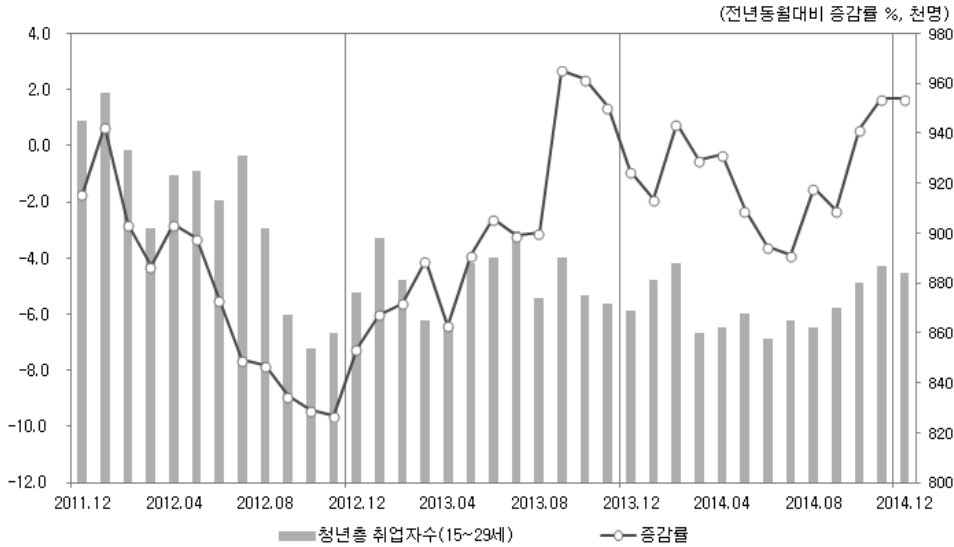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■ 서울의 12월 청년층(15세~29세)과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증감률은 플러스 증가세

- 서울의 12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88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.7% 증가
- 서울의 12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5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2% 증가해 꾸준한 플러스 성장
- 고령층의 취업 증감률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 폭이 감소하는 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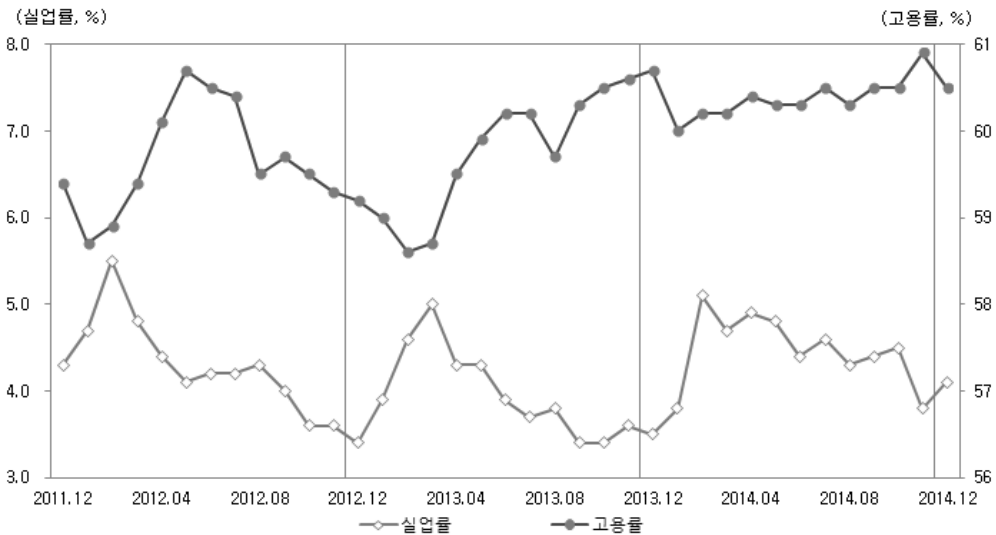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-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, 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
 -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60.5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감소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9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감소, 여자는 51.9%로 0.2%p 증가
 - 2014년 12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(59.4%)보다 1.1%p 높은 수준

- 서울의 12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 - 서울의 12월 실업자는 22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5천 명(18.2%)이 증가
 - 실업률은 4.1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상승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7%p, 여자는 3.6%로 0.5%p 각각 상승
 - 2014년 12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4%)에 비하여 0.7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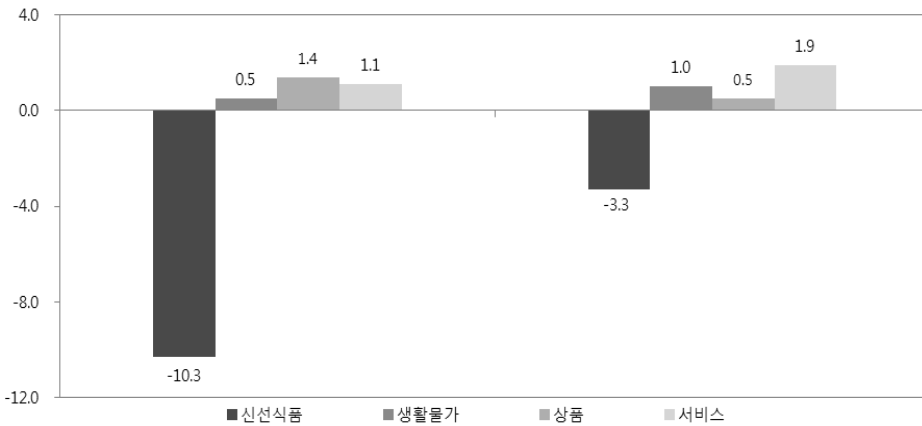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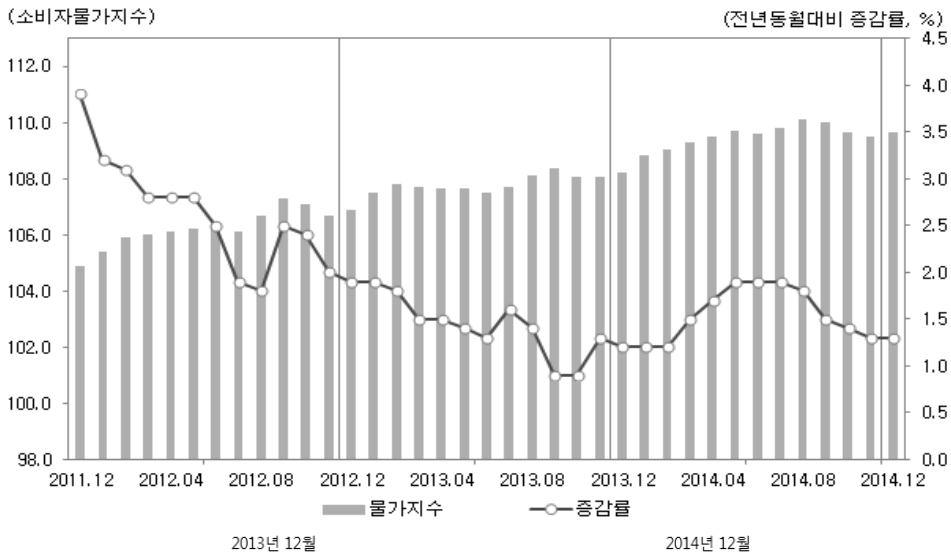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물 · 가 |

■ 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

- 2014년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.7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교통(-4.0%), 오락·문화(-0.4%), 주류 및 담배(-0.4%)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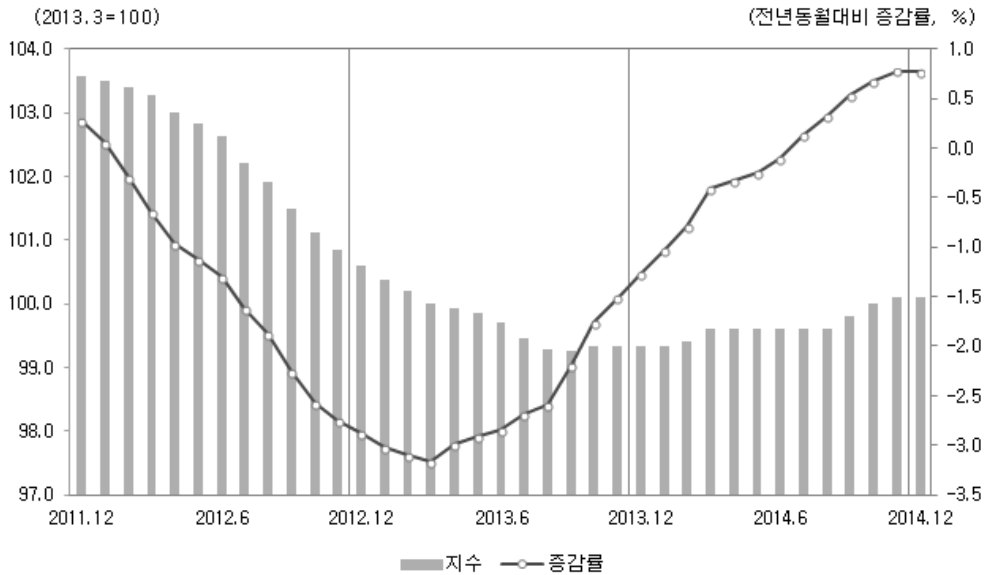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■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과 보합

-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.1로 전월과 보합수준을 유지하며 강남지역(100.5), 강북지역(99.8)이 각각 전월 대비 0.03% 감소, 0.05% 상승
- 주요 상승지역: 종로구 (0.22%), 성동구 (0.16%)
- 주요 하락지역: 강북구 (-0.15%), 서초구 (-0.12%), 용산구 (-0.12%)
- 아파트(0.02%), 연립주택(0.0%)은 상승, 단독주택(-0.02%)은 6개월 만에 하락

■ 전국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.6으로 전월 대비 0.18% 올랐으며 6개 광역시(104.6), 수도권(100.5), 기타지방(104.3)은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.32%, 0.09%, 0.17%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그림>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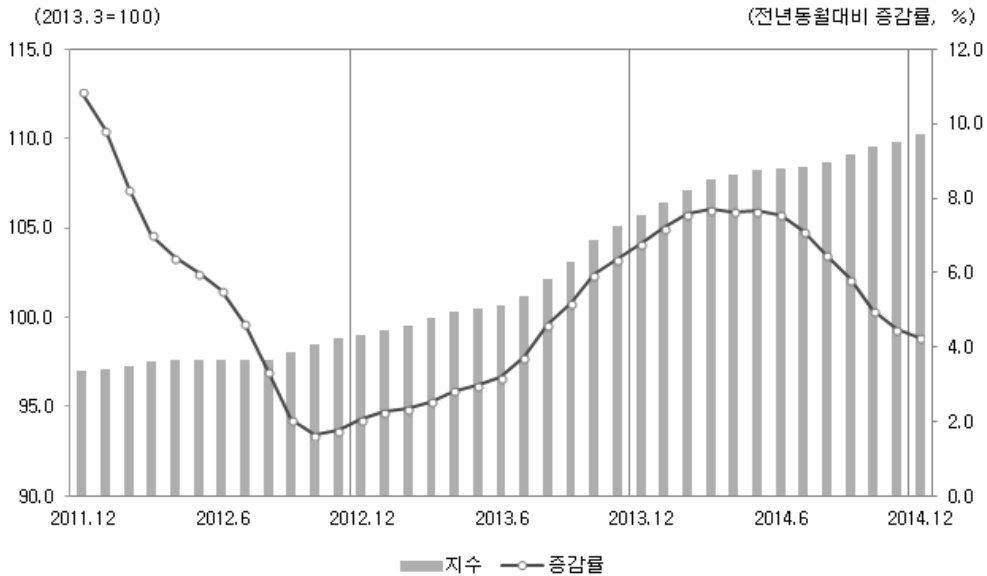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증가, 매매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평당 평균 매매가격(1,657만 원)은 전월(1,655만 원) 대비 0.13% 증가
- 매매거래건수(6,687건)는 전월(8,469건) 대비 21.0% 감소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-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상승, 모든 자치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
 -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0.2로 전월 대비 0.40% 올랐으며 강남지역(110.5), 강북지역(109.9) 모두 전월대비 0.37%씩 오르고, 전 자치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
 - 주요 상승지역: 종로구 (0.75%), 강북구 (0.64%), 서초구(0.75%), 강남구(0.68%)
 - 아파트(0.42%), 연립주택(0.34%), 단독주택(0.21%) 모두 상승

- 전국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 - 전국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8.7로 전월 대비 0.32% 상승했으며 6개 광역시 (107.2), 수도권(110.9), 기타지방(105.7)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.3%,0.39%,0.13%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그림>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증가, 전세거래건수도 전월 대비 증가
 - 평당 전세가격(1,051만 원)은 전월(1,041만 원) 대비 0.9% 증가
 - 전세거래건수(12,314건)는 전월(11,774건) 대비 4.6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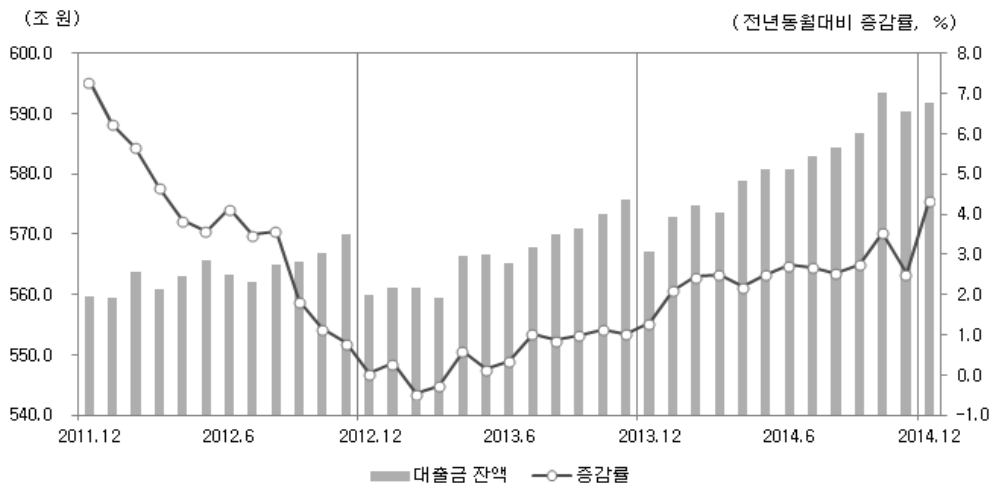
| 가 · 계 · 대 · 출 |

■ 12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591조 8,256억 원)은 전월(590조 2,970억 원) 대비 0.26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494조 4,419억 원)과 비예금은행(97조 3,837억 원)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.9% 증가, 7.0% 감소

■ 12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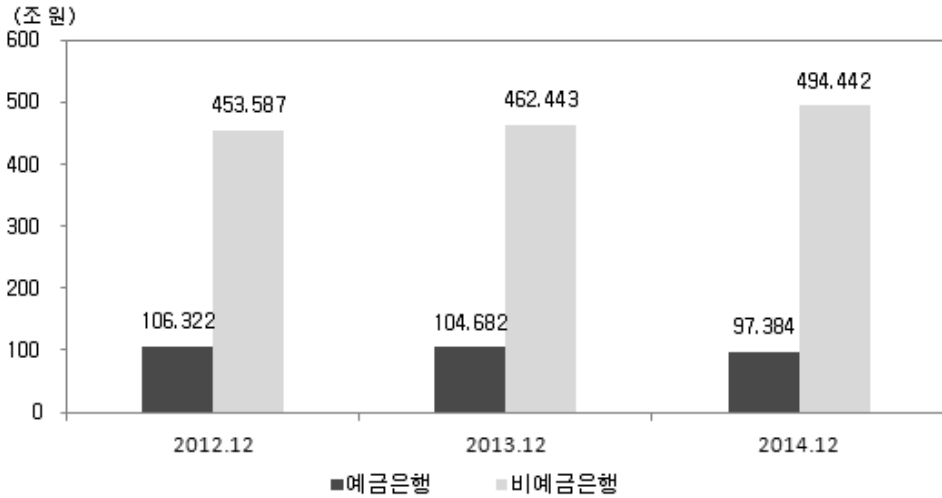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628조 6,867억 원)은 전월(1,623조 3,724억 원) 대비 0.33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 잔액은 1,250조 1,033억 원이며 비예금은행 잔액은 378조 5,834억 원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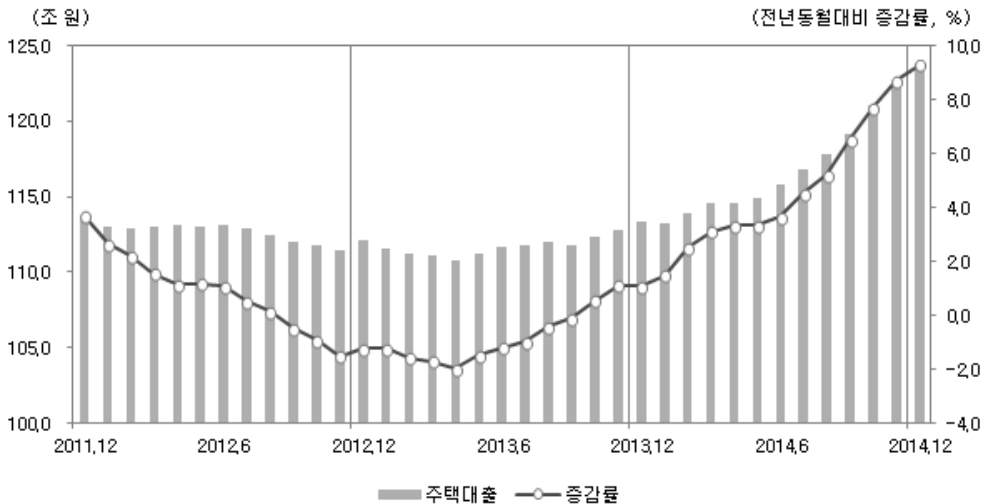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1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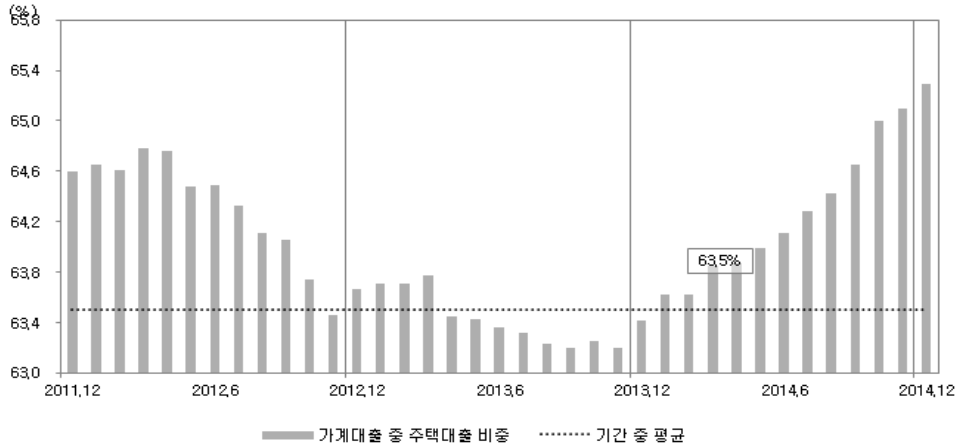
- 은행 가계대출(189조 6,801억 원)은 전월(188조 2,034억 원) 대비 0.8% 증가
- 그 중 주택대출(123조 8395억 원)은 전월 대비 1.1%, 전년 동월 대비 9.3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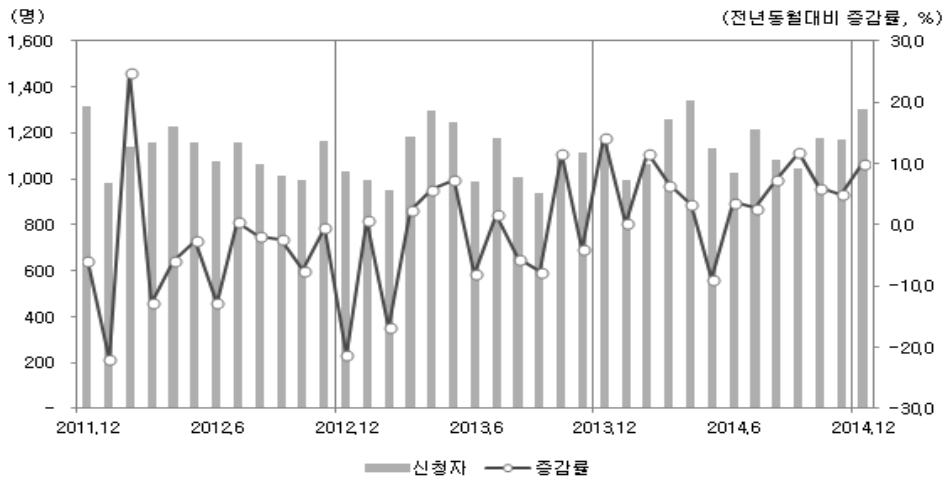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■ 1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증가, 면책 신청도 전월 대비 증가

- 개인파산 신청자(1,302명)는 전월 대비 12.2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1.2% 증가
-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 처리 건수(21건)는 전년 동월 대비 20건 증가했으며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률은 2.9%로 전년 동월 대비 2.8%p 증가
- 12월의 면책 접수 건수는 1,299건으로, 이 중 면책 기각 처리 건수가 34건이고 면책 기각률(3.0%)은 전년 동월 대비 2.0%p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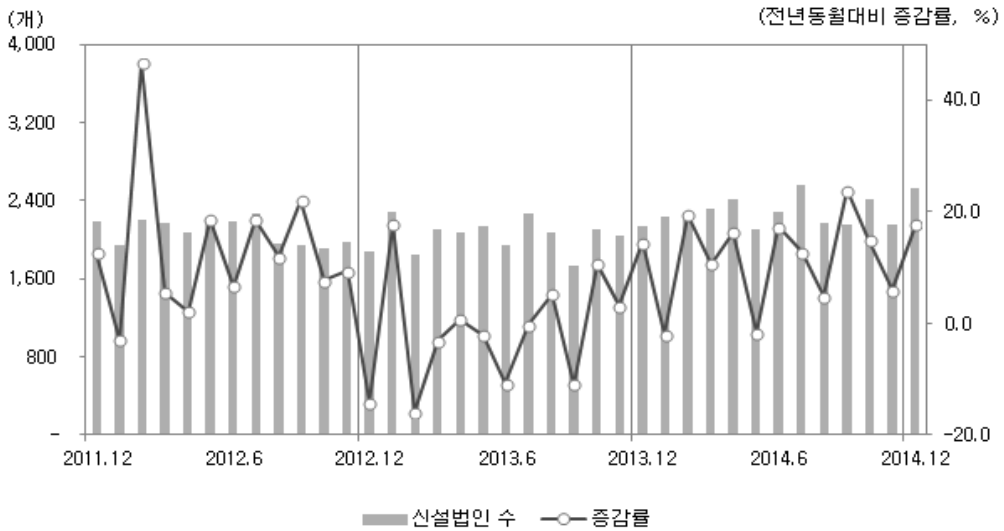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| 신·설·및·부·도·법·인 |

■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520개로 전월 대비 16.9%, 전년 동월 대비 17.6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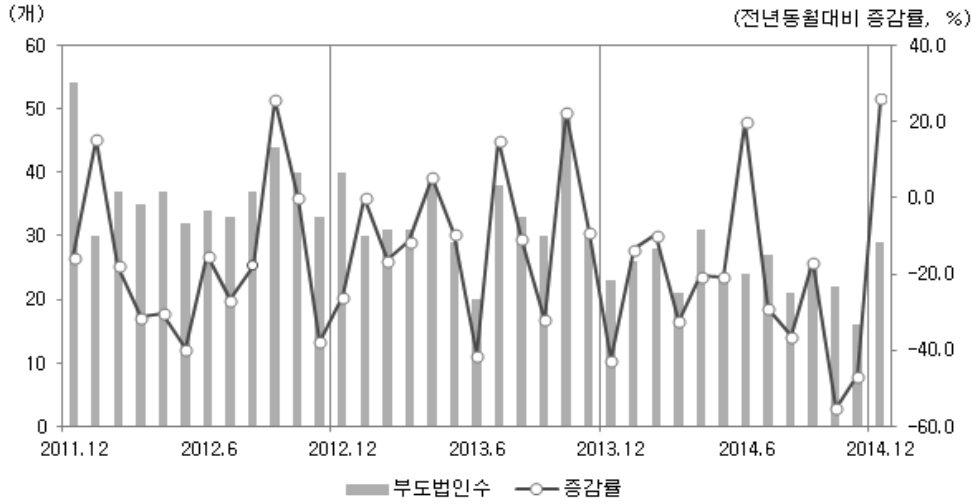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■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는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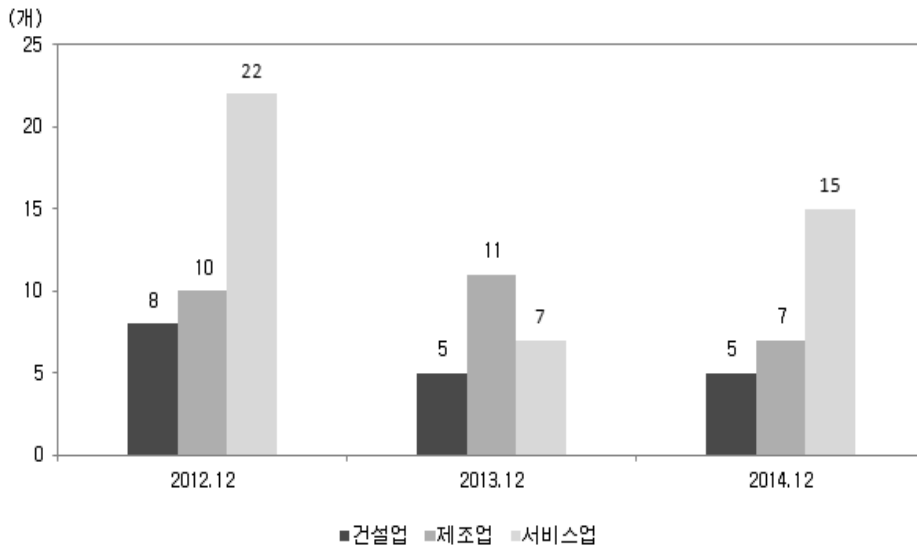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는 29개로 전월 대비 81.3%, 전년 동월 대비 26.1% 증가

- 업종별 부도업체 수는 제조업 7개, 서비스업 15개, 건설업 5개씩이며 전월비 차이는 각각 3개, 6개, 2개와 같고 전월 대비 증감률은 각각 75.0%, 66.7%, 66.7% 기록

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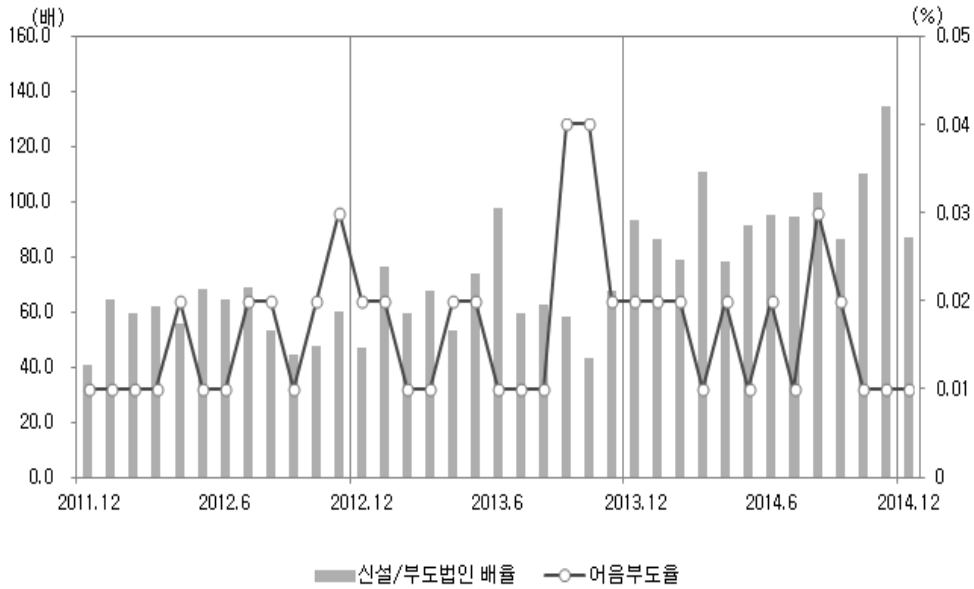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- 1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보합, 신설/부도법인 배율은 전월 대비 감소
 -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1%로 전월과 동일하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86.9로 전월(134.7) 대비 대폭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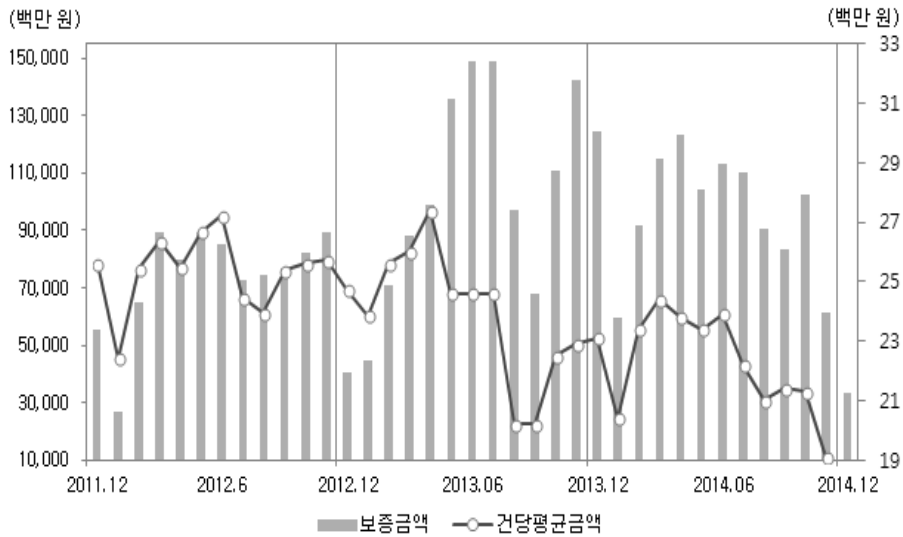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 / 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 · 용 · 보 · 증 |

■ 서울의 12월 보증금액,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대폭 감소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33,472백만 원 / 1,911건
·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45.6%, 40.8% 감소하고, 건당 평균지원금액 (17.5백만 원)은 전월 대비 8.4% 감소
- 전년 동월 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73.0%, 64.4% 감소하고,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24.2% 감소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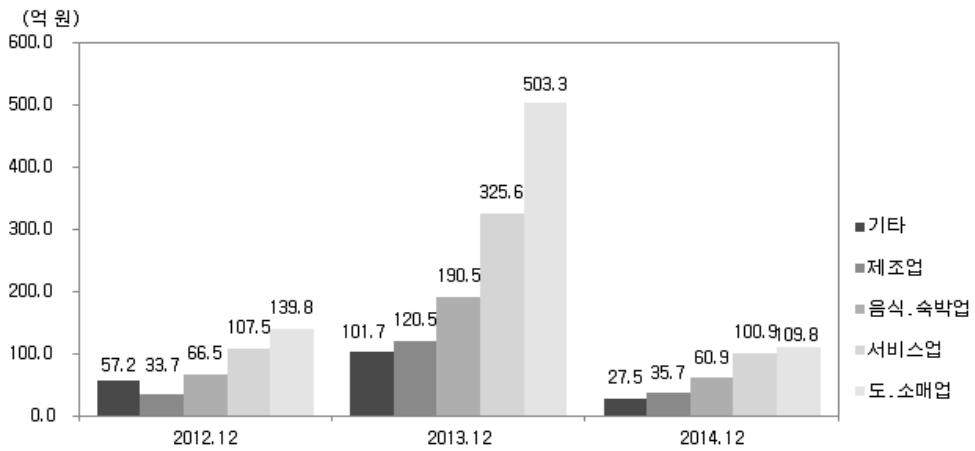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■ 도소매업 보증지원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, 제조업 보증지원 비중은 전월 대비 증가

-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09.8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.2%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 기준 보증지원비중은 32.8%로 전월 대비 2.6%p 감소
- 제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35.7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.4%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 기준 보증지원비중은 10.7%로 전월 대비 2.5%p 증가
- 보증건수 기준 시, 589건의 도소매업이 전체의 30.8%로 전월 대비 1.4%p 감소하였으며, 113건의 제조업이 전체의 5.9%로 전월 대비 0.9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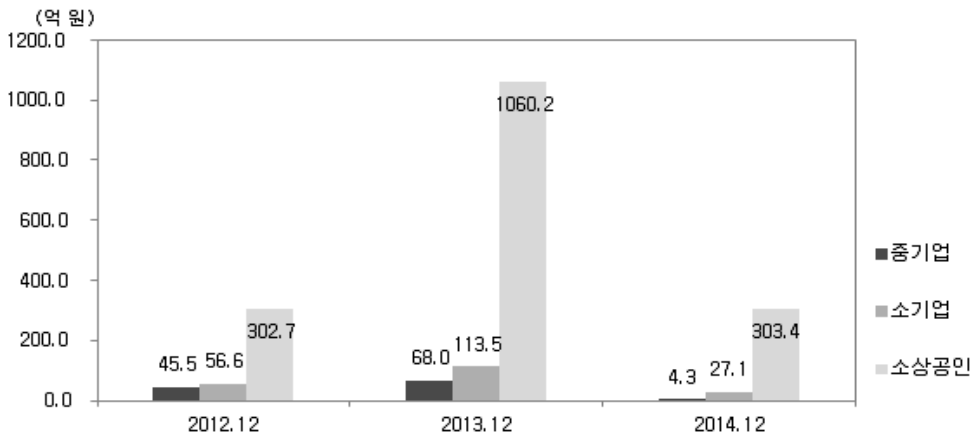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12월 소상공인 지원 금액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

-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303.4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월 대비 2.5%p 감소한 전체의 90.6%를 차지하고, 건수 기준은 97.6%(1,865건)로 전월 대비 0.2%p 감소
-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27.1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월 대비 2.5%p 증가한 전체의 8.1%를 차지하고, 건수 기준은 2.1%(41건)로 전월 대비 0.2%p 증가
-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4.3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월 대비 0.1%p 감소한 전체의 1.3%를 차지하고, 건수 기준은 0.3%(5건)로 전월 대비 0.1%p 증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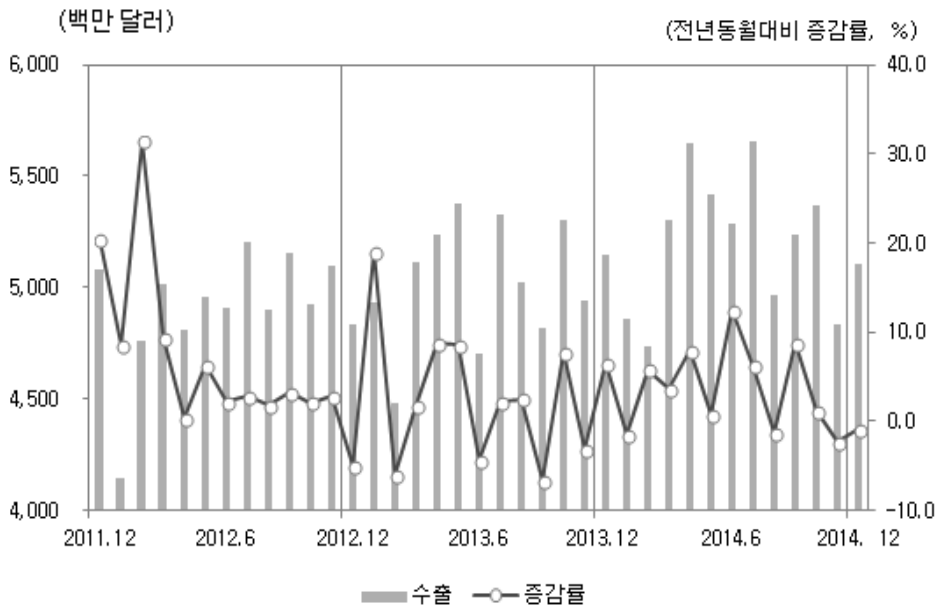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 · 출 · 입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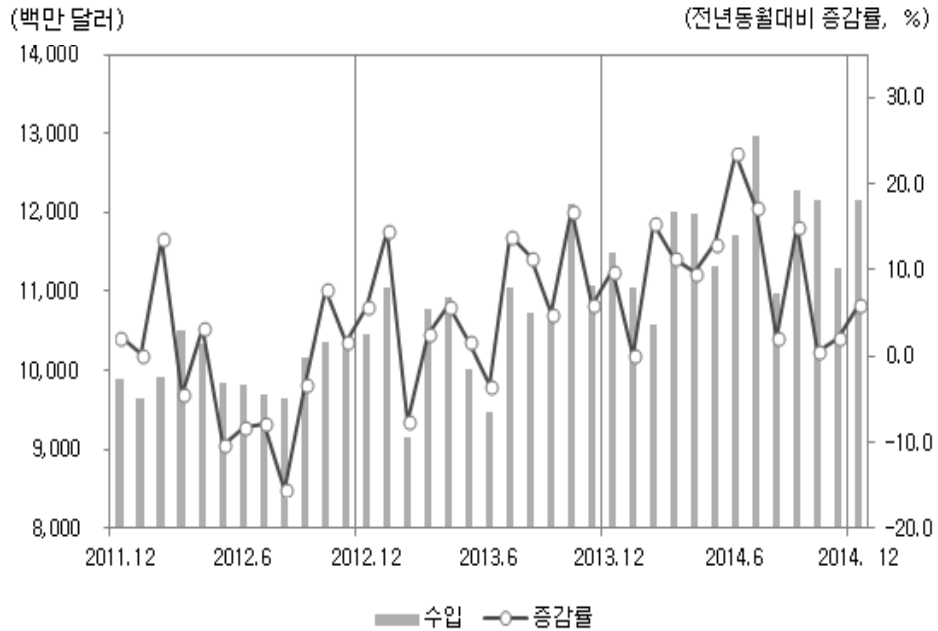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,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
 - 서울의 수출은 51.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0.8% 감소하였고 수입은 121.6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.9% 증가
 - 전국의 수출은 494.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.1% 증가하였고 수입은 439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.0% 감소

- 서울의 12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자동차
 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이 511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합성수지, 반도체, 편직물, 고무제품 순
 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자동차가 859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, 석유제품,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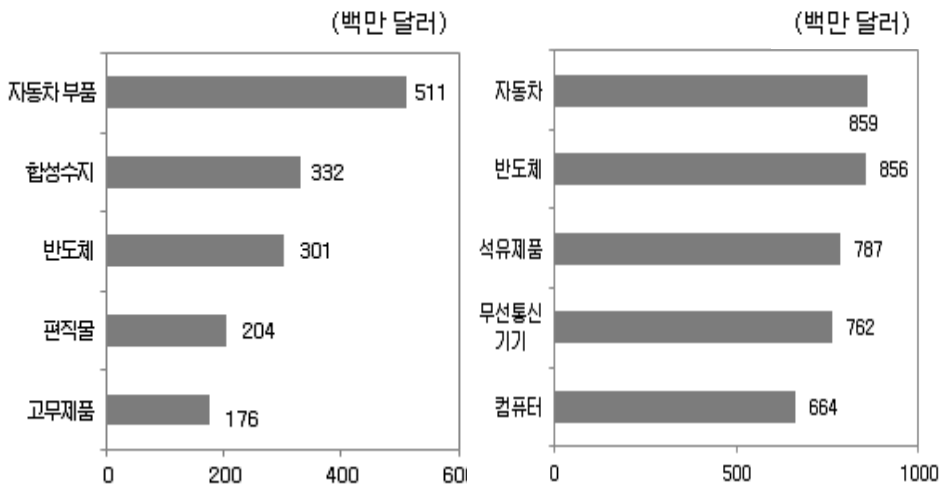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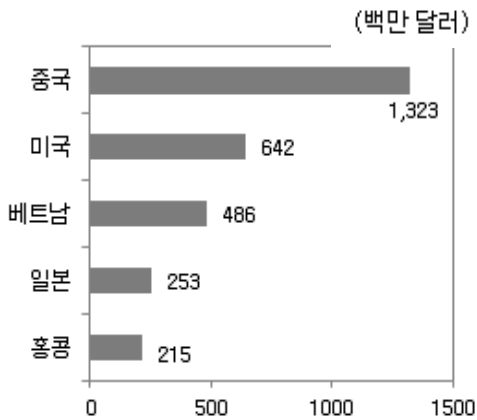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1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<그림> 1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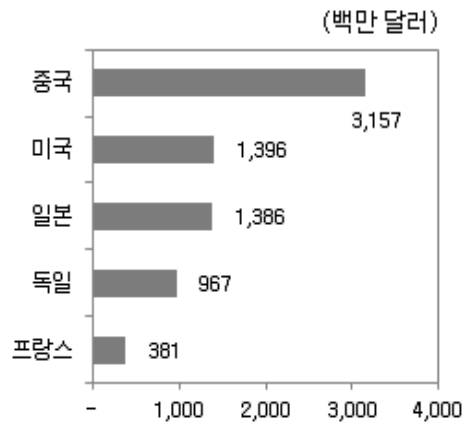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12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23% 감소한 1,32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그다음은 미국, 베트남, 일본, 홍콩 순
-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.7% 급증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1.9% 증가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23.9% 증가한 3,157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그다음은 미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 순
- 대 프랑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4.8%라는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독일로부터의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36.0% 증가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1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

<그림> 1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| 자 · 료 · 출 · 처 |

경인지방통계청, 「2014년 12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」
 경인지방통계청, 「2014년 12월 서울시 고용동향」
 경인지방통계청, 「2014년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」
 경제통계시스템, 「<http://ecos.bok.or.kr>」
 농수산물유통공사, 「<http://www.garak.co.kr/youtong>」
 관세청, 「2014년 1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」
 국민은행연구소, 「2014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」
 부동산114, 「2014년 12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」
 중소기업청, 「2014년 12월 중 신설법인 동향」
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, 「<http://stat2.smba.go.kr>」
 통계청, 「2014년 12월 산업활동동향」
 통계청, 「2014년 12월 고용동향」
 통계청, 「2014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」
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「<http://kosis.kr>」
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「<http://stat.kita.net>」
 한국은행, 「2014년 1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」
 한국은행, 「2014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」
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「<http://ecos.bok.or.kr>」
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「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」